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 박 광웅 아우구스티노 -

우리 ‘참 제자 모임’ 덕분에, ‘성경 묵상’과 함께 하는 ‘성체 조배’, 그리고 생활 ‘나눔’에 맞들이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큰 행운이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신앙이지만, 지금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말씀에서 오는 영감과 인간에서 오는 환상”이라는 언젠가 피정 주제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식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 나와는 많이 다르지만, 생활과 말씀이 그대로 결합되어 나타나시는 형제 자매님 모습들... 발견하고, 감사하고, 스스로를 다시 음미해 보는 시간들... 그래서인지 마지막 날에는 자기 이웃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준 사실로써,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빌리면, “가난함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인’을 판정하시겠다는 ‘말씀’들이 더욱 실감난다.

유대인들이 말하던 형제 자매는 원래 유대인들 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예언자 예제키엘은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 부러진 양-아픈 것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을 바로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 유대인 사회는 유목사회에서 출발했으므로.

중국인들의 큰 스승으로 ‘군자와 대장부’를 가르친 맹자는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독거노인(獨)”을 바로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출발했으므로.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 내 형제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해 주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신 사람들은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마태오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서부터 복음이 전해졌다고 썼다.

복음에서는 이를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이방인), 헐벗은 자, 병자, 수감자들에 대한 선행(나눔)-자선 행위”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 교육하기, 죽은 자 장례 지내기, 곧 유대인 형제 중 일부 무의탁자가 빠져 있다. 그 대신에 ‘감옥에 있는 자’에 대한 나눔-자선 행위가 들어가 있다. 이는 세계제국 ‘로마’의 권력으로 해서 가난해진 자들, 이른바 ‘카이사르’에 저항하다가 돈-권력들에 희생되어 무의탁자가 된 자들이 하나 더 포함된 셈이다.

나의 이웃,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나눔)-자선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얻은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이웃-형제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선행(나눔)-자선은, 결국 그 사람이 사는 바로 그 사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바로 그 당시 현실 처지에 따라서 느끼는, 그 ‘가난-결핍’을 채워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 생명-존재에 대한 결핍이란, 결국 자기의 생명-존재를 알게 해 주는 부분에서 모두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몸’의 차원, ‘영’의 차원, 그리고 ‘이름’의 차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나타날 것이다. 살아가는 장소와 시절에 따라서, 우리 이웃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은, 이름-몸-영 중에서, ‘몸’의 결핍보다 ‘이름’ ‘영(마음)’의 결핍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던 듯하다. 이는 4 계절이 분명한 동양의 논리로 따져보면, ‘생명(生命)’의 봄, 성장(成長)의 여름에 속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처지 탓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나와 만나고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마지막 ‘버팀목’ 정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희망)이 이제까지 자선-선행으로 가는 내 자신의 길을 이끌었던 듯하다. 나 스스로는 이제 ‘몸’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결실(結實)’의 가을, 퇴장(退藏)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새삼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요즈음은 유목사회도 농경사회도 산업사회도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사회이다.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로 상징되기도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인터넷 영역에서는, ‘몸’의 친교보다 ‘이름-영’의 친교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만큼 그 결핍 현상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돈’만이 인간의 가난-결핍이 아니라는 사실들... 예컨대 인터넷 나눔(친교)으로 인한 새로운 여론의 충격파들... ‘악플로 인한 자살’ 등 새로운 병리 현상의 충격파들...

오늘 이 자리의 ‘가난-결핍’들과, 오늘 이 자리의 ‘선행(나눔)-자선’들은,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코린토 2 서, 8 장 15 절)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같이,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고, ‘스스로의 형편’에 따르는 선행(나눔)-자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의 ‘친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초등학교2학년 시절 즉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방동성당에서 빵과 우유와 과자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가에, 동네 꼬마 개구장이들과 함께 어울려, 차가운 성당 마루 바닥에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앉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미사가 빨리 끝나기를 간곡히(?) 기도하던 생각이 머리를 스치니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 봅니다. 겨울철이라 날씨는 몹시 추웠고,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였기에, 조개탄 난로 2-3개의 난방으로는 추위를 이기기에는 어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감히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먹어 볼 수도 없는 맛있는 주식 아닌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갖고, 내용 및 뜻도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도 하고 성가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마도 성가를 부른 것이 아니고 ;빨리 맛있는 빵과 우유를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목청이 터져라 소리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마스였으니까 아마 대림시기부터 열심히 성당에 출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질수록 출석율이 좋을수록 먹을 것도 점점 푸짐하게 주었으니까요. 참석 인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1-2백 명은 족히 되었을 것입니다. 1958년 이야기니까 전쟁 후 먹을 것이 가장 귀하던 시절이었죠.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 및 구유를 바라보면서 하느님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구나 하곤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실제로 사용하던 소 먹이 구유 통을 놓고 질과 인형 등으로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였지만, 또 다른 구유 통에서 과자와 먹을 것을 꺼내주시던 신부님 수녀님들의 모습이 어린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천사같이 보였고 희망의 전부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에, 신부님과 수녀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빗자루 들고 그 넓은 성당 안팎을 쓸고, 성당 마루 바닥을 걸레로 닦고, 또 초를 칠하여 반들반들하게 광택도 내고, 눈 오는 날이면 모이지 말라고 하여도, 무언가의 기대에 부풀어 성당에 모여 작은 동산 위에 있는 모든 눈을 깨끗이 치우던 행동이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새벽 미사에 가면 어떤 청년 분이 큰 목소리로 성당이 쨍쨍 울리도록 기도문을 외우고 노래도 하던 모습은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 실제로 계신 것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분명히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 탄생과 교리에는 별 관계없이 그저 맛있는 먹을 것에 대한 기대에 부푼 커다란 희망과 꿈 그 자체이었습니다.

그 다음해 도림동 성당에서도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역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자체였고, 시간이 갈수록 희망의 기대치의 크기와 부피가 조금씩 작아지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그 대방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멋모르고 뛰놀던 그 넓은 터전이 좁아 보였고, 그 곳에서 혼배미사를 봉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또 다른 희망을 잉태한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한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빵과 우유가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어, 우리 부부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이루었기에, 그 희망이 현실화되고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희망과 꿈은, 더욱 고귀한 새로운 출발의 희망과 꿈을 탄생시켜주셨습니다.

희망과 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의 순환 속에서, 예전에 느꼈던 희망과 꿈의 몇 곱절이 주님의 숨결로 다시 되돌아 오는 은총을 온 몸에 느끼며, 희망을 따라 주님과 함께한 그 동안의 생활의 열매는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곤 몇 달 전 대방동을 지나다가 잠시 들러 본 성당. 몇 번 올 적마다 변화된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언덕은 그대로이고, 느껴지는 숨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벅찬 희망으로 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체 조배 하며 바라본 주님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빵과 우유의 희망과 꿈을 나누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맛있는 과자를 얻기 위한 희망이나, 혼배미사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부부의 새로운 출발의 희망이나, 암과의 병고를 순응하면서 이겨나가는 앞으로의 또 다른 이삼십 년을 기대하는 희망과 꿈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의 최대의 푸짐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모든 일에 깊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마르코 복음. 13,33-37 (대림 제1주일)

- *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것인지? 주님에게 기쁨의 선물을 드릴 준비는 되어있는지?
주님의 물음에 대답도 못하고 얼굴을 꼭 숙이고 병어리가 되지는 않을런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조금은 떳떳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 탄생을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은총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모습이다. 더럽고 냄새 나는 마굿간이 바로 나의 마음 속이다. 그 마음 속에서 다시 깨어나면서 태어나야 한다. 그 속에서 탄생하시는 향기 나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내가 온 몸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다.
- * 여러 가까운 이웃 가족끼리 나누는 체험 - 은사를 통해, 서로 '실생활로 깨어있음'을 보고 있음.
- * 묵주기도 중, '영상처럼 마주보기 하는 은사'를 통해 '현존 연습' 하는 중
- * 깨어 있음은 '예수님과 의 일치', 이를 빨리 알아 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 나눔에 익숙하지 못하나,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충실한 종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
- * 주님 모르기 보다 발견 못해서 깨어있으라 하심. 주님 발견해 내는 삶으로써 감사 드리고자 함
- * 깨어있는 곳을 알고 찾아오미, 깨어있는 것
- * 깨어있음은 '주님 동반 - 주님 분별' 체험을 거쳐 '주님 파견' 체험에 이른 제자에 하신 즐거운 말씀
몸 - 마음 깨어있음도 쉽지 않지만, '임마누엘 -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란 '이름'에도 깨어 있어야
- * 예수님은 깨어있는 분 = 부활, 실은 종들이 기다리기보다, 주인이 기다리심.
깨어있음은, (떠나며 권한을 나눠주는) 주님과 같은 '주인 의식'을 가짐을 의미하기도.
요즘은, 세상 일 끝내고 떠나도, 그 일이 '나 = 주인'이라 하여 계속될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음
- * 깨어 있음은 주님을 나의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도록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가야 한다. 나의 생활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2번째 아니면 3번째 정도 될 것 같다. 나의 생각과 의지가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있으면서도 잠이 덜 깨어 완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확실히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생활 속에서 주님이 최우선으로 제1인 경우이다.

마르코 복음 1.1-8 (대림 제2주일)

- *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왜 나에겐 들렸다 안 들렸다 할까?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 마련하여야 하는데 주님의 길커녕 나의 길을 만들다 엉켜있는 모습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도 30 여 년 인데 즐겁고 기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몸을 굽혀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자격이 아니라 그 분 옆에 가기도 겁나 회피하는 모습. 회개하는 것 시작부터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내 마음 속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겠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회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겠다.
- * 세례 때 준비하는 기억 회상하니, 회개 제대로 못함 -> 마음에 탄생하듯 하는 비중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 * 결혼 때 준비 - 기다림 기억 회상, 대림 준비 부족함 실감. 평소보다 부드럽게 살아가도록 노력
- * 주님의 길 준비는 1년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조용하게
- * 우리 순교자 많은 건, 예수 맞이 준비로는 펍 나쁜 길? 순교 영성과 대림을 함께 묵상
- * 자연의 오랜 준비->하느님 개입 시작. 세례자 요한은 자연식 -> 하느님의 힘 = 자연과 역사를 연결해줌
- * 세례자 요한은 다윗 - 엘리야 상징의 구약 역사 체험을 묶어 정화 -> 미래 메시아에게 이어지는 길을 준비
그 길 = 죄로부터의 해방 -> 물의 세례로 사람들 정화 -> 죄가 용서되는 성령의 세례를 예비 함
- * 복음 시작 = 예수 그리스도 = 하느님 아들 = 새로운 창조 -> 거꾸로 가지만, 새 하늘 - 새 땅으로 늘 새로워지고 있음
바오로 사도는 살아있는 하느님 체험 = 인간 - 영 안에서 창조 행하심. 하느님 신성 참여.
생명나눔은 인격적 관계, 큰 능력 지닌 분 -> 생명-활력, 자연의 힘으로 포메이션. 무력해도 교회는 하느님 일 함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8. 12. 12.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11	628,892,000	718	414,147,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12월12일 현재 총 3억2,000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8,000만 원 입니다. 2009년 초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에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중기도 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또는 주모경 및 어떠한 화살기도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08년** 연말 정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1월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봉헌자의 성명이 다른 경우 12월 말까지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7일(토)-8일(일) (1박2일)** 향 후 참제자 마을 정신 확립 및 상징성 정립을 위한 피정이 운영위원 및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과 구신부님과 함께 진행예정이오니 많은참가바랍니다.(세부사항추후공지)

* 11월22일 성체조배와 미사 후 운영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참 제자 마을의 현안 문제와 2009년 초에 진행될 피정의 집 건축에 관한 의견 수렴과 2009년 2월 7-8일 참제자 마을 정신 및 상징성 정립을 위한 피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11월 8일 홍천군 모곡리 임야에서 40여명이 참여하여 감사미사와 모곡리 임야 등산과 산책 후 구 요섭님 정원에서 통째지 파티로 푸짐한 먹거리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봉사하여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 상운 도미니꼬 가정에서 재배한 제주도의 무농약 무공해 감귤 판매에 협조하여 주셔서 약 236박스를 판매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강은주 루시아 자매님의 [성물 채색] 전시회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명동 평화화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11 월 8 일 베리파스 교사회 회장이신 국 옥희 마리아님의 장녀 김 세연 글라라양의 결혼식이 수서동 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매주 토요일 15시 성체 조배와 나눔 및 미사
15시 - 16시 ; 성체 조배
16시 - 17시30분 ; 나눔
17시30분 - 18시30분 ; 특전미사

- 매일12시 정오 ;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 및 화살기도

*** 운영위원회 조직**

자문위원 ; 진교훈, 황적인, 김선규, 최한국, 지희용
홍승수, 김영자, 정영란, 김정임, 국옥희
이상운, 최창주, 정태진

추진위원장 ; 양명신

총무분과장 ; 백영국 (봉사; 홍순숙, 시설; 김동성)

전례분과장 ; 박광용 (전례; 안상용, 제대; 김정숙)

구역분과장 ; 문수정 (백영국, 홍순숙, 손 수, 양명신)

재정분과장 ; 양명신